

제주도 신화와 ‘고통’의 문제*

-〈초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신연우**

【국문초록】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초공본풀이〉는 제주도 굿의 처음 부분에 연행되며 또 천부지모형 신화라는 서사구조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각 무가에서 구현되는 고통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이들을 묶어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제주도 굿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베포도업침〉에서는 자연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제시했다. 〈천지왕본풀이〉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사회적 고통을 보여주었다. 〈초공본풀이〉의 아기씨는 자신이 왜 어떤 이유로 고통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신이 내리는 고통은 이유가 없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 고통이기 때문이다. 노가단풍 아기씨가 대표로 겪는 무지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수명장자 징치 실패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리고 노가단풍 아기씨의 삶의 고통이 현실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이 지상에는 고통이 종식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이들 신화에는 들어 있다.

레비나스는 고통 속에 있는 타인이 보여주는 얼굴, 표정, 신음, 외침, 한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주목하게 한다고 본다. 고통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게 된다. “고통은 순수하게 당하는 것, 어떠한 도피처도 없이 굴복당하는 것, 굴복 그 자체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를 바라보는 청중도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

뭔가 모르겠지만 자기 것이 아닌 고통의 타자성에 대한 막연한 인식은 아기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통을 대상화하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인다. 아기씨의 고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서 함께 노래를 듣고 아기씨의 고통을 공유하는 같은 자리의 다른 청중과도 대면한다. 심방은 〈초공본풀이〉를 부르면서 자주 운다. 심방의 울음은 노가단풍 아기씨의 울음이면서 심방의 것이다. 심방의 것이면서 청중의 것이다. 심방과 청중은 아기씨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포개어 놓으니 눈물이 난다.

이를 통해서 내가 아닌 약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고 보인다.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아 가난 속에서 혼자 기르는 많은 여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들의 고통을 함께 하며 보편화하는 인식의 발전이 있다.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삼매두같은 아이들의 고통도 함께 자기화할 수 있다. 약자들을 서로 돕는 윤리적 자아가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를 통해 보면 자연이나 사회적 관계로 인한 고통은 해결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해결 이전에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초공본풀이〉가 제기한다. 고통은 전면적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삶을 무의미하게 또 황폐하게 할 수 있다. 부질없는 고통이기만 한 삶을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가 하는 실존적 질문으로 연결된다. 〈초공본풀이〉는 노가단풍 아기씨를 통해서 고통은 목적이 없고 그 자체로 의미가 없지만, 고통의 타자성 속에서도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이해하고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된다. 이 공감에 의한 실천이 민중적 도덕성을 이룬다.

〈초공본풀이〉에서 보여주는 고통의 모습을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등 제주도의 다른 서사무가와 비교해 보았고,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 여주인공들이 교만으로 인해 비극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핵심어 : 제주도, 서사무가, 고통, 〈초공본풀이〉,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니오베

차례

1. 머리말
2. 고통의 양상
3. 고통의 解決과 未決
4. 고통의 의미
5. 여성, 무지, 교만
6. 맺음말

1. 머리말

문학은 인간의 삶을 다루고 고통은 삶의 큰 부분이어서 문학의 주요한 제재 중 하나가 바로 고통이다.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굿에서도 역시 고통의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다. 굿의 첫머리인 <베포도엮침>에서부터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과 죽음이 언급되고, 유사한 양상을 다른 무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베포도엮침·천지왕본풀이·초공본풀이>는 제주도 굿의 처음 부분에 연행되며 또 천부지모형 신화라는 서사구조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각 무가에서 구현되는 고통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이들을 묶어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제주도 굿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초공본풀이>는 특히 제주도 굿의 원형적 구실을 한다. 이를 중심으로 삶의 고통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 문제가 제주도의 다른 신화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초공본풀이>에서의 고통의 양상이 제주도의 다른 무가에 반복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통하여 제주 무가에서 다루는 고통의 일반적 성격을 확인하고자 한다.

<초공본풀이>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¹⁾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제로

한 것은 보기 어렵다. 분석심리학자인 이부영이 바리공주, 손님굿 무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초공본풀이>의 삼행두를 중심으로 보고 “세속적 명예 욕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스스로의 변신, 자기 개혁으로만 가능하다.” “삼천선비로 대표되는 세속의 권위, 상징적으로는 ‘내면의 세속적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²⁾라고 지적한 정도이다. <초공본풀이>에서 고통이 더 잘 드러나는 인물은 노가단풍 아기씨라고 볼 때 고통 자체의 양상과 의미에 대하여 본격적인 탐구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일러준다 하겠다. 또한 분석심리학의 입장만 개진되고 있어서 보다 보편적인 이해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특히 고통과 여성적 수동성의 의미를 여성 주인공의 행적과 연관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초공본풀이>의 여주인공을 통해서 고통을 공감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자 한다. 문학적 체험으로써 보편성을 확보해나가는 구비 서사문학의 한 예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를 넘어서는 대단히 보편적인 주제이기도 할 것이다.

2. 고통의 양상

먼저 제주도 굿의 가장 첫머리에 구송되는 세 가지 무가에 나타나는 고통은 고통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양상은 각각 다르다. <베포도업침>

1) <초공본풀이>의 선행연구는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비속함과 성스러움』, 『고전문학연구』 42집, 한국고전문학회, 2012, 172-173면에 정리되어 있다. 이중 본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논문은 없다.

2) 이부영,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고통과 치유의 상징을 찾아서』, 한길사, 2012, 591면.

을 보자. <베포도엮침>은 창세신화이다. 천지가 개벽하여 하늘과 땅이 나뉘고 동서남북이 정해질 때 거인인 청의 동자가 솟아났고 그의 앞이마에 눈이 둘 뒷이마에 눈이 둘 있어서 이것으로 하늘에 해와 달을 만드니 해와 달이 두 개씩 있게 되었다는 사정을 전한다. 이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겪게 된다. 또 이때에는 귀신과 인간이 섞여 사는 무질서한 때였다고 말하는 각편도 있다.

금세상은 밝았스나 햇둘에는 인생이 자자죽고
달빛해는 실퍼죽어서 인생이 살 수 업슨직(박봉춘본, 김헌선, 395면)³⁾

귀신 불르민 생인이 대답호고 생인 불르민 귀신이 대답호고
인간 백성 낮이는 뱃쓸에 즈자죽고 밤이는 얼어 고사 죽고
가지랑게 목매여 죽고, 즈싯물에 빠져 죽고, 낭팡 제푸싯새가 말을 종종
궂곡.(고창학 본, 461면)

해가 둘이어서 낮에는 타죽고 달이 둘이어서 밤에는 얼어 죽었다는 것은 문자적일 리 없다. 세계가 형성될 때 인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어서 자연이 인간이 살기에는 적합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도 자연 그대로는 인간이 살기에 어렵다. 자연에는 지진, 태풍, 홍수, 해일, 가뭄 등 인간을 괴롭히는 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인간과 귀신이 나뉘어 있지 않고 나무와 동식물들이 말을 하는 것도 인간에게는 고통스럽다.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은 무질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사는데 사회 형성의 전제조건은 질서이다. 질서가 없이는 인간 모둠살이가 불가능하다. 자연은 대등하기에 무질서하다. 무질서 속에

3)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395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본풀이의 경우 인용 끝에 면수를 밝히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하기로 한다.

서 인간은 고통을 겪는다.

이들 두 가지는 자연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는 ‘자연으로 돌아가자!’와 같은 순진한 말을 하지 않는다. 자연은 그대로는 살기에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신화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인간만의 사회를 따로 구성하던 시절의 모습을 반영한다. ‘무질서에서 질서로!’가 모든 창세신화의 캐치프레이즈이다.

그렇다고 인간사회가 이루어지면 고통이 그치는 것이 아니다. <천지왕본풀이>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고통을 제시한다. <천지왕본풀이>의 악인은 흔히 수명장자라고 한다. 수명장자는 아버지가 예순살이 되자 밥을 주지 않고 죽을 준다. 배가 고파서 이유를 묻자 “아버지, 사름 혼대가 서른 인디, 아바진 금년이 예원, 두 대를 살아시니 너미 살았수다.”(이무생 본, 439면)라고 한다. 늙어서 힘이 없는 사람이 겪는 고통을 수명장자의 악행으로 그려놓았다. 약자를 돌보아야 가족이나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늙은 아버지의 고통은 가족과 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수명장자는 그 모습대로 이웃에게도 행악을 한다. 정주병 구연본에는 그의 가족까지 남에게 고통을 준다.

수명장제가 없는 인간덜 대미(大米) 꺾 주랭 흐민 백모살(白沙) 허꺼주고, 없는 인간덜 소미 꾸레 오라시민 흑모살 허꺼주고, 없는 인간덜 쌀 꾸레 오라시민 큰 말(大斗)로 받아당 죽은 말로 풀앙 부제(富者)웨니. 수명장제 딸덜은 없는 인간덜 검질(雜草) 메여 도랭허영 오라그네 검질 메여 주머는 조은 장(醬)은 지네 먹곡 고린 장을 주어서 부제 되었수다. 수명장제 아덜덜 마쉬(牛馬) 물을 멕여 오랭 흐민 물발통에 오좁(小便) 갈겨두고 믫쉬 물 멕여 오랏수맹 용흐멍 사옵네다. (정주병 본, 432면)

천지왕에게 저녁을 대접하던 총명부인은 모래 섞인 밥을 주게 되었다. 이는 수명장자같은 악인이 부자이고 권력자임을 나타내는 반면, 총명부인 같은 가난한 이웃을 그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국 총명부인 같은 가난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은 수명장자와 그 가족이 사람을 속이고 자기네 이익을 배가시키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들어 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부터도 고통을 받는다. 이는 사회 계층이 형성되었고 가진 자 또는 권력자가 약자를 갈취하는 사회 구조를 반영한다고 보인다. 사회적 약자는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고통을 겪어 왔다. 이는 인간으로 인한 고통, 사회적 고통이라고 부른다.

신도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천지왕의 작은 아들인 소별왕은 속임수를 써서 형으로부터 이승을 훔쳐서 자기 차지로 했다. 이로 인해 지상에는 사기, 도둑질, 살인, 역적, 간통 등의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천지왕본풀이>는 말한다.

설운아시 소별왕아 이승법이랑 츠지혜여 들어사라마는 인간의 살인 역적 만히리라. 고문 도둑 만히리라. …… 이녁 가속 노아두고 놈의 가속 울러르기 만히리라.(정주병 본, 437면)

이로 인해 생기는 악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신화의 내용이 신화 밖의 현실에 작용하여 현실의 악을 해명하고 이해하게 한다. 그런데 이 고통은 근원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세상의 처음부터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 세상과 함께 끝까지 갈 것이다. 소별왕은 때로는 하늘의 해를 쏘아 인간이 살게 해주기도 하고 수명장자를 징치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주체이지만 이렇듯 지상의 악의 근원이기도 하다. 자연적

사회적 악을 해결해 준 주체가 동시에 살인 도둑 등 악의 이유이기도 하다. 는 이율배반이 또한 악의 현실성을 담보하기도 한다. 하나의 악을 해결하는 것은 동시에 또 다른 악을 가져오는 것이 이 세계라는 인식이다. 인간은 이러한 악으로 인한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인다. 기독교에서처럼 최후의 날에 하나님이 사탄을 제거함으로써 해결되는 것과 달리 해결될 길 없는 고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보다 절망의 깊이가 깊다.

고통의 실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베포도업침>에서는 해와 달이 들쭉 있어서 겪게 되는 고통이 ‘낮에는 잤아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 다는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단순한 진술로 그쳐서 실감이 크지 않다. 반면에 수명장자로 인한 사연은 더 상세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쌀 빌려주는 대목도 상세하고, 아버지가 배가 고파하다가 저승가서도 제사밥 먹으러 내려오지 못하는 사연도 상세하게 구술된다.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 아기씨⁴⁾는 더 구체화되어서 삶 전체가 고통으로 얼룩져 있다.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노가단풍 아기씨는 열다섯이 되는데 무렵 출신을 알 수 없는 중으로 인해 임신하게 된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 임신의 고통을 겪고 이를 안 부모는 딸을 죽이려 한다. 결국 쫓겨난 아기씨는 중을 찾아 산과 바다를 넘는 고생길을 지나 중을 만나지만 신부 시험을 겪어야 했다.

주접선성 곧는 말이, 공 드리고 아니 드린줄 알 거난,
 츠 나룩 식 동이를 내여주멍, 착솔 어시 깡 오랜 허난
 노가단풍 즈지멧왕 애기썬 츠나룩 식동일 반안
 느려산 비새ㄱ썬 울어간다 이-
 흐나 두 개 까가난 손콰 아판 못까가니
 무정눈에 즈은 드난⁵⁾

4) 본명은 훨씬 길지만 간략하게 노가단풍 아기씨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어도 중은 부부가 되어 같이 살지 못한다며 내쳐진 아기씨는 혼자서 세 아들 쌍둥이를 낳아 가난 속에서 기른다. 아들들은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지만 삼천선비의 모략에 의해 결국 죽고 만다.

뜻하지 않은 임신, 집에서 쫓겨남, 먼 여행길, 신부 시험, 혼자서 출산하고 가난 속에 양육, 아들이 빌미가 되어 결국 살해당함 - 이것이 노가단풍 아기씨의 평생이다.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다. 잠시 기쁨이 있었다면 세 형제가 가난 속에서도 공부를 잘 하여 서울로 과거시험을 보러 갈 정도였다는 것일까? 그러나 그나마도 그것이 사단이 되어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노가단풍 아기씨의 고난에서 우리는 고통을 본다. 팔다리가 잘리는 신체적인 고통은 아니지만 규중의 아가씨가 알 수 없는 임신을 하고 부모와 인연을 끊고 귀한 몸이 천한 신분으로 하강하고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모두 삶의 고통으로 연결된다. 급기야는 신체적인 죽음으로 이어진다.⁵⁾

이렇게까지 한 인간,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삶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형상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신화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삶의 고통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5) 이종춘 구송,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31면.

6) '고통은 인물 내부의 정서이며 고난은 외부의 시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위에서 본 바 태양이 들어어서 사람이 타 죽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지 고난이라고 하지 않는다. 또 본고는 노가단풍 아기씨의 고난의 서사적 구성보다는 고난에 찬 삶에 기인하는 고통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3. 고통의 解決과 未決

<베포도업침>에서는 자연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제시했다. <천지왕 본풀이>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사회적 고통을 보여주었다. <초공본풀이>의 고통은 무어라고 해야 할까? 노가단풍 아기씨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직접적인 인물은 주접선성이라는 중이다. 그러나 <초공본풀이>의 아기씨의 고통의 원인의 하나는 아기씨의 무지와 무능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이 왜 어떤 이유로 고통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오는 고통을 감내할 뿐이다. 주접선성은 신적인 인물이다. 그러니 이는 신이 인간에게 가하는 고통이기도 하다. 신이 내리는 고통은 이유가 없다. 인간이기에 그저 고통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다. 이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손쉬운 답은 실존적 고통이라고 할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고통의 최종적 이유를 인간은 알 수 없다. 노가단풍 아기씨가 대표로 겪는 무지의 고통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해와 달이 둘씩 있다는 베포도업침의 문제는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활을 쏘아 하나씩 떨어뜨림으로서 완전히 해결된다.

대별왕, 소별왕이 천근활에 백근살로 앞에 오는 일월광은 생겨 모시고
뒤에 오는 일월광은 쏘아다가 동의바당 용궁에 받졌습니다. 그 법으로 낮
의 일광 하나 생기고 밤의 월광 하나 생겨 낮에 찾아죽던 백성 밤에 실려
죽던 백성 살기에 편하게 되었습니다.(문창현 본, 386면)

이는 하늘에 해와 달이 하나씩 있는 현실의 모습을 그린 것이기도 하지만, 자연으로부터만 고통은 해결된다는 낙관적 전언이기도 하다. 물론 지금도 자연으로 인한 고통은 지속된다. 그러나 인간은 그 문제에 관한 한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갈등 없이 협조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아니게 된다.

<천지왕본풀이>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는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기도 한다. 수명장자는 하늘의 천지왕이 정치하기도 하고(문창현 본, 정주병 본), 소별왕이 정치하기도 한다(박봉춘 본). 때로는 정치하지 못하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고 정치에 대한 언급이 없기도 하다(김두원 본, 이무생 본).

이는 사회적 문제가 초월적 원리에 의해 해결되기도 하고 지상적 원리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인다. 때로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원리로 사회 질서를 찾기도 했고 때로는 정치와 경제 정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권력자의 부패와 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승이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했던 천지왕본풀이의 다양한 각편은 오히려 종합적으로 우리 세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 아기씨가 죽었다가 신으로 재생하였다는 결말은 일정부분 고통의 끝을 보여준다고도 하겠지만 현실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노가단풍 아기씨의 삶의 모습은 대단히 현실적이다. 지금도 누군지 모를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젊은 여성이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미래의 삶이 와해되고 집에서 쫓겨나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 가난 속에서 열심히 양육하는 여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잘 자라 과거에 급제할만큼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하여 많은 참여자들의 공감을 자아낼 <초공본풀이>는 그러나 고통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노가단풍 아기씨의 문제는 누가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초공본풀이>

에서 이 문제는 결국 종교적으로 귀결되고 있다. 아들 삼행두 삼형제가 곁을 해서 죽은 어머니를 살리고 모두는 이승과 저승의 신이 된다.

네 어명은 어궁도복 차지로 사라서 인간의 복을 주고
너의 삼형제는 목숨 차지로 사라서 인간의 명을 주라 하시니⁷⁾

어머님이랑 삼하늘에 지국홉서
우리랑 저승 삼시왕에 들어사근 양반 원수 갇으쿠다(이중춘 본, 144면)

신이 되어 인간에게 명과 복을 주는 존재로 거듭났다고 한다. 사람들은 아들 신에게 명과 복을 빈다. 삶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노가단풍 아기씨나 삼형제에게 이승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신이 되어서야 이승의 삶의 고통도 끝이 나기 때문이다.

이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가령 서양의 기독교의 辯神論(theodicy, 神正論)과 비교해볼 수 있다. 신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이 세상에는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변신론은 부정적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신의 선함과 인생의 보람을 더욱 확실하게 한다는 목적론적 설명을 한다.

그러나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아기씨나 삼형제에게는, 그리고 이들의 노래를 듣는 제주도 민중들에게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기씨의 고통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억지로 말하자면 아들을 낳아 그들이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성의 삶을 수단으로만 간주하여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해도 삶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다. 여성들은 이 고타노래를 들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7) 적송지성,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 上, 동문선, 1991, 257면.

고통을 되새기고 옆의 사람들과의 공감을 통해 고통을 현실 속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결과를 가진다.

청중들은 노가단풍 아기씨의 고통을 이미지화 하고 같은 고통을 겪어 나가는 옆 사람과의 연대를 통해서 고통을 대면하는 경험을 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레비나스가 보여준 바 있다. 이런 고통스러움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곳 노래가 거듭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수명장자 징치 실패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리고 노가단풍 아기씨의 삶의 고통이 현실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이 지상에는 고통이 종식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이들 신화에는 들어 있다. 또한 이 고통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고통은 고통일 뿐이다. 겪지 않는 것이 좋다. 노가단풍 아기씨의 삶과 같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노가단풍 아기씨에게 빈다. 고통에 어떤 선한 목적도 상정하지 않는다. 고통을 겪다가 신이 되었을 뿐이지 고통의 의미가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노가단풍 아기씨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그녀의 고통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어떻게 그러한가?

4. 고통의 의미

강영안은 레비나스를 해설하면서 고통은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한다.⁸⁾ 고통은 철저하게 자기만의 것이다. 누구에게도 전가시킬 수도 없고 누구도 같은 고통을 같은 크기로 함께 하지 못한다. 동시에 고통은 아무리 오래 겪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나의 것이지만 나 자신으로부

8)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225면.

터 가장 멀리 있다. 나와 분리 불가능이면서 동시에 통합 불가능, 이해 불가능이다. 그래서 오히려 他者性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다.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 그것은 나의 것이지만 나도 잘 모르는 대상이다. 이 고통을 남들과 어떻게 공감 또는 공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고통 자체가 갖는 타자성에 기인한다. 나와 다른 것이 존재함을 알게 되면 唯我論(solipsism)에서 벗어나는 기초가 된다. 내가 아닌 타자가 존재한다는 경험을 통해서 남에게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

이때 레비나스는 고통 속에 있는 타인이 보여주는 얼굴, 표정, 신음, 외침, 한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주목하게 한다고 본다.⁹⁾ 고통 받는 존재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타인을 향해 열리게 된다. 신체의 고난, 수고로움, 피로함 등 주체의 수동성을 형성하는 것은 “낯선 타자성이 나의 온 몸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의미한다.”¹⁰⁾ 타인의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통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지만 “타자와의 관계로 발전할 때 과연 그 고통의 호소가 타자에게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호소”가 아닐 수 있게 된다.¹¹⁾

고통의 고통, 타자의 쓸모없는 고통을 위한 고통, 타자의 정당화할 수 없는 고통을 내 안의 정당한 고통이 고통을 인간 상호간의 윤리적 전망으로 열어준다. 이 전망 속에서는 ‘타자 안의 고통’과 ‘내 안의 고통’, 나 자신의 고통 경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타자 안의 고통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나에게 간청하며 나를 부른다. 내 안의

9) 김연숙은 이를 ‘대면적 관계윤리’라고 표현한다.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에서 “대면적 관계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동서철학회 논문집』 19호, 한국동서철학연구회, 2000, 125면.

10)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문예출판사, 2009, 272면.

11) 공병혜, 『고통의 현상과 윤리적 삶』,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인문의학』, 휴머니스트, 2008, 137면.

고통의 체질적이고 타고난 쓸모없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어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한 고통이 되는 것이다.¹²⁾

이런 시각은 우리 제주의 서사무가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 아기씨 이야기를 다시 보자. 노가단풍 아기씨의 삶은 전체가 고통으로 점철되었다. 임신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고통을 겪는다. 아기씨가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큼 그것을 남과 나누어가질 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고통의 이해 불가능과 분리 불가능성을 함축한다. 아기씨가 늘 속수무책이고 답답하도록 수동적인 이유도 고통이 철저한 수동성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의 형상화라고 읽을 수 있다.¹³⁾ 고통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게 된다. “고통은 순수하게 당하는 것, 어떠한 도피처도 없이 굴복당하는 것, 굴복 그 자체에 굴복하는 것이다.”¹⁴⁾

이러한 존재를 바라보는 청중도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뭔가 모르겠지만 자기 것이 아닌 고통의 타자성에 대한 막연한 인식은 아기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통을 대상화하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인다. 아기씨의 고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서 함께 노래를 듣고 아기씨의 고통을 공유하는 같은 자리의 다른 청중과도 대면한다. 심방은 <초공본풀이>를 부르면서 자주 운다. 심방의 울음은 노가단풍 아

12) E. Levinas, “Useless Suffering”, in *Entre Nous : On Thinking-of-the-Other*,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8. 박정호, 「고통의 의미-레비나스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2권 4호, 2011, 151면. 재인용.

13) “여성의 실존방식은 숨는 것이요 수줍음이다.” 레비나스, 양명수 번역, 『윤리와 무한』, 다산글방, 85면. 물론 이 여성성을 문자 그대로의 것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4) 강영안, 위의 책, 217면.

기씨의 울음이면서 심방의 것이다. 심방의 것이면서 청중의 것이다. 심방과 청중은 아기씨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포개어 놓으니 눈물이 난다.¹⁵⁾

이를 통해서 내가 아닌 약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고 보인다.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아 가난 속에서 혼자 기르는 많은 여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들의 고통을 함께 하며 보편화하는 인식의 발전이 있다.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삼땡두같은 아이들의 고통도 함께 자기화할 수 있다. 약자들을 서로 돕는 윤리적 자아가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이 현상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이렇게 생성되는 자아의 도덕성이 학교나 교회, 가정이나 국가가 가르쳐주는 도덕 법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는 “자기 이기심을 버리고 도덕 법칙을 따라야만 하는 나의 도덕적 심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수성에 노출되어 수용되는 타자의 얼굴에서”¹⁶⁾ 온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경우 흔히 되게 이황이나 성리학이라는 말로 주어지는 도덕규범이 아니라 민중 개인의 자연스러운 도덕규범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이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의 자발성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것이다. 이는 아무도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성리학 이론에 대한 커다란 반론이다. 내가 도덕성을 미리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를 넘어서는 도덕성이 생성된다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도 중요하다. 학교나 국가에서 주어지는 도덕규범이 아니라

15) 이러한 점은 무당이 巫醫의 역할을 한다는 점과 아울러 용이 말하는 ‘상처 받은 치유자’의 관점으로도 이해해볼 수 있다. 무당 자신이 삶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부영은 이를 ‘상처 입은 자가 병을 고친다’라고 하였다. 이부영,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고통과 치유의 상징을 찾아서』, 한길사, 2012, 594-595면.

이부영은 샤먼을 ‘상처 받은 치유자’로 보는 논고도 제시하고 있다. Halifax, Joan(1982), *Shaman, The Wounded Healer*, New York, Crossroad.

16) 공병혜, 위의 논문, 138면.

스스로 갖게 되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도덕규범은 지금도 장려되어야 한다. 강제성을 띤 도덕은 실질적 도덕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도덕이라야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로는 이렇게 감수성으로 생성되는 도덕성은 타인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며 생성되는 도덕은 고통의 얼굴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도덕이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타인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때 타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인정되고 존중될 수 있다.¹⁷⁾

노가단풍 아기사슬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 한 사람을 본다. 노래를 하는 심방과 듣는 청중과 함께 삶의 고통의 느낌을 나누어 갖는다. 이들은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대상들이지 나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욕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지금처럼 같은 인간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에 이러한 체험은 우리를 시대적 질곡으로부터 초월하게 한다.

제주 곶을 하고 보고 듣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새로운 시대의 도덕적 요청에 대한 시각이 함축되어 있다. 오래 되어 낡았을 것 같지만 오히려 새로운 감수성의 도덕적 가르침이 무가를 통해서 전승되어 왔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베포도엮침, 천지왕본풀이를 거쳐서 <초공본풀이>로 이어지는 고통의 구성은 체계적이기도 하다. 베포도엮침에서의 고통은 낮에는 타죽고 밤에는 얼어죽는다는 정형화된 진술로 그쳤다. 그만큼 실감이 적을 수 있다. 지금은 해가 둘 달이 둘 있는 세상이 아니어서 그 느낌이 살에

17) 공병혜, 같은 논문, 138면.

와 닿지 않는다. 이 고통은 관념적 성격이 강하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수명장자로 인한 고통은 보다 상세하다.

쉬맹이 아방이 궂 예원이 나난 식상 식술을 설러불고 아척이도 죽, 낮이도 죽, 조낙이도 죽, 흐로 죽 시 사발쑥을 먹이기로 하니, 쉬맹이 아방은 때 들어온 하님년신디 “이거 어떻흐난 용 흐 때 죽 흐 사발쑥만 주느냐? 내 배고파서 못살겠다.” …… “아바지, 사름 흐 대가 서른인디 아바진 금년이 예원, 두 대를 살아시니 너미 살았수다. 아바지가 두 대를 살아도 더 잘 먹을커건 죽영 저싱 가도 하다 이싱에 귀신으로 먹으레 오질 말키영 흐민, 죽영 삼년상에 식상 식술 놓는 몫 잘 대접홀쿠다.”(이무생본, 439면)

또 위에 언급한 바대로 이웃에게 쌀을 빌려 주는 데 모래를 섞어 주는 등의 장면도 상세화되어 있다. 이는 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소재들로 익숙한 것들이다. 이는 관념적이지 않은 생활고이다. 생활에서의 고통이 장면화되어 있다. 들쭉 있는 일월 화소보다 생활에서의 실감이 더 크다.

<초공본풀이>는 이야기 전체에서 노가단풍 아기씨의 삶의 고통을 말한다. 이것은 생활적일 뿐 아니라 실존적이기도 하다. 수명장자의 화소에서 고통이 수명장자와 같은 인색한 권력자가 원인이어서 책임을 전가할 곳이 있었는데 <초공본풀이>에서 아기씨는 자신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니 누구에게 전가할 수도 없다.

이 세편의 이야기는 천부지모라는 공통 화소를 공유하면서도 고통의 문제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데서부터 생활 일반의 것으로, 또 생활에서 실존으로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확대를 통해 고통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집약되어 간다. 해와 달이 둘 있는 문제는 인간의 고통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주 자체의 창조는 그 자체로 인간이 시비할 것이 아니다. 세계는 잘 만들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해와 달이 둘 있는 자연은 문제가 된다. 자연은 우연히 인간에게 고통을 줄 뿐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통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한다.

수명장자의 악행으로 인한 고통은 생활에서 겪는 것들이다. 가진 자와 권력자가 부리는 횡포는 자연의 것이 아니다. 같은 인간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이다. 이 역시 고통이 어떤 의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권력자의 탐욕이 고통을 유발할 뿐이다.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다는 인식은 역사의 실상을 반영한다. 이로 인한 고통은 해결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해결 이전에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초공본풀이>가 제기한다. 고통은 전면적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삶을 무의미하게 또 황폐하게 할 수 있다. 부질없는 고통이기만 한 삶을 어찌서 지속해야 하는가 하는 실존적 질문으로 연결된다. <초공본풀이>는 노가단풍 아기씨를 통해서 고통은 목적이 없고 그 자체로 의미가 없지만, 고통의 타자성 속에서도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이해하고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된다. 이 공감에 의한 실천이 규범으로 학습되는 도덕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으로 체험되는 민중적 도덕성을 이룬다는 것을 위에서 살폈다.

5. 여성, 무지, 교만

위에서 <초공본풀이> 노가단풍 아기씨의 고통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그 특징을 압축하자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여성 수난의 전형적 모습을 보

인다는 것이다.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로 대표되는 우리 문학사의 여성 수난 모티프가 다시 구현되고 있다. 아기씨는 남성인 주점선성의 일방적 접근으로 임신하지만 속수무책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 가족인 아버지와 오빠들도 아기씨를 구하려하지 않는다. 이는 임신과 육아, 육체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되는 여성이 겪는 보편적 수난으로 공감을 얻는다. 둘째는 아기씨가 자신의 고통의 이유와 해결방법에 대해 아주 무지하다는 것이다. 아기씨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한다. 임신으로 배가 나오고 몸에 이상이 생겨도 그것이 임신인줄도 모른다는 것은 아기씨의 무지함을 애써 강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아기씨는 무지함과 더불어 수동적이기도 하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을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행동하지 못한다. 알 수 없는 임신을 했고 쫓겨났고 아기들을 낳았고 혼자 기를 뿐이다. 심지어 죽음에 당하여도 어떤 능동적 행동도 보여주지 않는다. 죽이기에 죽었을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제주도의 서사무가에서 다루는 고통이 여성과 무지를 내세우는 것이 여럿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 서사무가의 일반신본풀이에서 삶의 고통을 잘 드러내는 화소가 들어 있는 것은 <이공본풀이>, <차사본풀이>, <문전본풀이>, <세경본풀이>이다.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는 아이를 뱀 채 장자네 종으로 팔린다. 장자는 원강아미를 겁탈하려 하고 그때마다 위기를 넘긴다. 태어난 할락궁이는 종이 되어 격심한 노동과 학대에 시달린다. 할락궁이는 아버지를 찾아 떠나고 원강아미는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다. 여기서 원강아미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점에서 노가단풍 아기씨와 다르다.¹⁸⁾ 그이에게 오는 고통은 여성이기에 겪는 것이다. 하늘의 부름이라는 명분으로 남편은 혼자 떠나가 버리고 재인장자

18) 신연우, 『여성담담층 관점에서의 <초공·이공·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고전여성문학연구』 2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41-245면.

에게서 반복되는 성적 요구를 물리쳐야 한 것은 여성으로 겪는 고통이다.

널리 알려진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도 여성적인 고난을 겪는다. 하늘의 자손인 문도령과 혼인을 하고자 하였으나 문도령은 하늘로 떠났고 하인 정수남이는 자청비를 속여 겁탈하려 한다. 하인을 죽이고 집에서 나와 베 짜는 할머니 밑에 들어가 살림을 살다가 다시 문도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자청비는 중이 되어 동냥하며 떠돌아다닌다. 하늘로 올라가 문도령을 만나게 되었지만 신부 시험을 받아야 했다. 자청비의 편력은 문도령이라는 남성을 만나기 위한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자청비는 무지하지 않다. 오히려 무지한 것은 문도령이다. 그럼에도 고난은 자청비가 겪는다. 그것은 여성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문전본풀이>에서 노일저대구일의 딸의 꺾임에 빠져 남선비는 재물을 다 뺏기고 장님이 되고 여산부인은 죽임을 당한다. 노일저대구일의 딸은 남선비의 아들들까지 죽이고자 한다. 아들 일곱 중 노일저대구일의 딸의 흥계를 짐작한 사람은 막내아들 녹디생인 뿐이었다. 녹디생인 외의 모든 사람은 노일저대구일의 딸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남선비도 여산부인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할 뿐이다. 장님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왜 그런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남선비는 여산부인 행세를 하는 노일저대구일의 딸을 자기 부인 여산부인으로 안다. 여산부인은 반갑게 맞아주는 노일저대구일의 딸의 진심을 짐작도 못하고 그가 이끄는 대로 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는 두 사람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차사본풀이>에도 악녀가 등장한다. 과양생이의 처는 지나가던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의 명주 비단을 앗으려고 이들을 죽여 연못에 수장해버린다.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는 단명할 목숨을 이어보려고 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열다섯살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이들은 경고가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이 과양생이처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녀가 주는 밥을 먹고 따듯하게 잠이 들자 그들은 곧 죽게 된다. 이들의 삶에는 어떤 기쁨도 없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절에 보내야 한다는 중의 말을 들은 부모가 이들을 떠나보냈고 이제 자라서 돌아오다가 죽고 말았다. 과양생이처의 악행으로 인해 이들의 삶은 고통으로 마감했는데 이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삼형제는 공복에 과양생이처가 주는 술을 마시고는 잠이 든다. 과양생이처는 “삼년 묵은 참기름을 부어다가 청동화로 단 숯불에 오송오송 졸여다가 윈 귀로 오른 귀로 소로록 부어가니 세 형제는 얼음산에 구름 녹듯 어머니 아버지 말도 못하고 죽습디다.”¹⁹⁾라는 표현은 이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채로 죽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는 여성이기에 겪는 삶의 고통을 부각했고 <차사본풀이>와 <문전본풀이>는 악에 대한 무지가 고통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고 하겠다. 이외에 일반신본풀이는 아니지만 <지장본풀이>와 <허궁애기본풀이>에도 유사한 면모가 보인다. 지장본풀이의 지장 아기씨는 착하디착한 사람이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가까운 사람이 모두 죽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부모 조부모가 다 죽어 외삼촌네서 갓은 고생을 하다가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그 부모까지 다 죽어버려 동냥을 하며 산다.²⁰⁾ 이런 부조리에 대한 이유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삶의 고통에는 이유가 없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라고 이본풀이는 말한다. 허궁애기가 고통을 겪는 것은 아기들을 돌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살림을 너무도 잘하여 하늘로 불러 올라가는 허궁애기는 아기들을 돌보려고 아침이면 하늘로 올라가고 저녁이면 내려와서 아이들

19)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201면. 표준어로 고침.

20) 이중춘,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303면.

을 입히고 씻긴다. 이웃집 할머니로 인해 결국 허궁애기는 죽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이 본풀이는 하늘과 땅이 단절되게 된 유래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 세부에서 허궁애기는 출산 육아와 살림을 하지 못하여 고통을 겪는 여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²¹⁾

<초공본풀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주도 굿의 원형적 역할을 한다. 제주 굿을 할 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초공본풀이>에서 그러했기 때문이라는 답을 흔히 듣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주로 의례적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되어 왔지만 오늘 살펴본 바로는 내용적 측면에서도 <초공본풀이>가 하나의 원형을 이루는 양상을 보았다. 노가단풍 아기씨가 겪는 고통은 여성이기에 겪는 고통과 삶과 악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고통 두 양상으로 집약되었는데,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다른 본풀이에서도 여성과 무지가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초공본풀이> 뿐 아니라 제주도민의 인식 나아가서 삶의 고통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고통이 남성보다 훨씬 컸다는 인식과 고통의 궁극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는 황당함이 고통의 저변에 깔려 있다.

여성과 고통과 무병을 앓고 되는 무당의 삶을 연결하는 구도는 전국적 전승인 <바리공주>로도 확대될 수 있다. 무당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고통스럽게 버림받고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 죽음의 통로를 다룰 수 있다는 권능을 가지고 동정심을 소유한 ‘상처받은 치유자’로 전환되는 패턴을 이 상징적인 삶의 길로 받아들이게 된다.”²²⁾ 이와 함께 <초공본풀이>의 육지 유형인 <당금애기> 또는 <제석본풀이>도 <초공본풀이>의 연장선상에서 고통의 관점으로 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통 특히 여성적

2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14면.

22) 다니엘 키스터, 『삶의 드라마』,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7, 79면.

삶의 고통의 문제는 우리나라 서사무가의 신화적 주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초공본풀이>를 다른 나라의 신화와 비교해게 된다. 여성됨 자체가 삶의 고통을 빚어내는 이유가 되는 신화는 가부장제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어디든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는 절대적 힘을 가진 신에 의한 인간 운명으로 주어지는 고통에 관한 신화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여성적인 고통이 크게 부각되는 유명한 이야기는 에로스(큐피드)의 아내가 되는 싸이키(프쉬케) 이야기이다. 예뻐서 여신의 질투를 받고 정체를 모르는 신랑과 결혼했다가 嫗母인 아프로디테(비너스)에게 각종 시련을 겪는 싸이키의 역정은 신부 시험으로 이해되기도 하느니만큼 여성적 시련의 면모가 강하다.²³⁾ 이외에도 제우스의 사랑을 받았다가 헤라의 질투로 고통과 죽음을 겪는 이오나 에우로파, 세멜레, 다나에 등 여성의 고통은 우리나라의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 아기씨나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셋째 딸이 겪는 고통과 많이 닮아 있다.²⁴⁾

그런데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 아기씨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면모인 무지로 인한 고통의 모습과 대척적으로 그리스에는 니오베 신화 같은 것이 있다. 니오베는 자신의 아름다움, 남편, 가문, 그리고 일곱 아들과 일곱 딸을 무한한 기쁨으로 이는 행복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테베의 여자들이 레토(라토나) 여신과 그 자녀인 아폴로(포에부스)와 디아나(포이베)를 경배

23) 존슨은 싸이키가 겪는 고난을 진정한 여성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다. 로버트 존슨, 고혜경 옮김, 『신화로 보는 여성성 she』, 동연, 2006, 1-143면.

24) 서대석은 구렁덩덩신선비와 큐피드와 싸이키 설화를 비교했고, 신연우는 <초공본풀이>와 다나에 설화를 연관 지어 보았다.

서대석, 『구렁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3,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186면.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입사담적 면모』, 『한국무속학』 19, 한국무속학회, 2009, 17면.

하고 찬미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비난한다. 자신이 그 신들보다 아름다움이며 행복하다고 자랑하느라고 여신을 모욕하고 상처를 주었다. 이에 극심하게 분노한 여신은 아폴로와 디아나에게 하소연하고 이들은 카르모스의 성으로 내려가 니오베의 아들딸들을 하나씩하나씩 활로 쏘아 죽인다. 막내 딸 하나가 남았을 때 옷자락으로 딸을 감추며 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화살 하나로 그마저 죽는다. 너무도 큰 슬픔으로 니오베는 모든 감각을 잃고 돌이 되어 버렸다.²⁵⁾

니오베의 고통의 원인은 무지가 아니라 교만이다. 인간은 아무리 탁월해도 신과 비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언을 하는 여러 개 신화 중 하나이다.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다는 유명한 두 개의 경구 - ‘너 자신을 알라.’와 ‘그 무엇도 지나치지 말라.’ -는 이들이 가진 중용의 가치를 잘 드러낸다.²⁶⁾ 중용을 넘어서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운명과 함께 그리스 비극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히브리스’라는 말로 알려진 인간의 교만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일 때도 있지만 인간적인 실수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때에도 혹독한 대가가 요구된다. 니오베의 경우도 지나치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실수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하다.

인간의 숨씨를 넘었다는 칭찬을 받는 아라크네 이야기도 있다. 아라크네는 너무도 훌륭한 솜씨로 베를 짰지만 아테나(미네르바) 여신보다 낫다고 하며 신들을 조롱하는 수를 놓아 여신의 분노를 자아냈다. 결국 아라크네는 한 마리 거미가 되고 말았다.²⁷⁾ 여성은 아니지만 에리식톤도 여신을 시험했다가 벌을 받았다.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이 사랑하는 나무

25) 오비디우스, 이윤기 옮김, 『변신 이야기 1』, 민음사, 2007, 249면.

26) 앤토니 앤드류스, 김경현 옮김, 『고대 그리스사』, 이론과 실천, 1999, 382면.

27) 오비디우스, 앞의 책, 239면.

를 베어버린 에리식톤은 그치지 않는 허기의 벌을 받아 온 재산을 팔고 딸도 팔아 음식을 마련하다가 최후에는 자기 몸을 뜯어먹는다.²⁸⁾

잘 알려진 대로 오이디푸스나 아가멤논 등 신들이 마련한 운명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함께 생각하면 그리스 신화는 ‘운명/여성/교만’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에 비해 제주도의 신화는 ‘여성/무지’가 그 원인으로 제시된다고 비교해볼 수 있다. 제주도에 운명에 관한 신화가 가령 삼공본풀이가 있지만 이것이 비극으로 종결되지는 않는다. <초공본풀이>처럼 여성의 고통을 주제로 하는 것들은 공통적이다. 그리스에서의 교만과 제주도의 무지는 크게 대조된다.

<초공본풀이>와 그리스의 니오베 신화 비교는 지나치게 간략한 언급이기는 하지만 확대해 고찰해볼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신화에서의 무지로 인한 고통과 그리스의 교만으로 인한 것과 아울러 기독교의 흠과 죄²⁹⁾로 인한 고통으로 비교를 넓혀나갈 수 있다.

6. 맺음말

제주도 초감제의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 그리고 이어서 연행되는 <초공본풀이>는 창세로부터 인간 사회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지상의 인간 삶은 자연으로 인한 고통, 사회로부터의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실존 자체에 기인하는 고통으로 대별된다. 이 신화들은 바로 이들 고통에 대한 현상 제시와 해명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 무가의 본질이 그 하나로

28) 위의 책, 371면.

29) 폴 리코르,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 문학과지성사, 1994, 37-150면.

수렴된다고 할 수 없고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인간과 사회의 고통의 기원과 이유를 해명하고 있는 점에서 신화로서 충분한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으로부터의 고통에 대하여는 비교적 쉽게 해결되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반해 사회적 고통은 해결되지 않기도 하는 설정, 그리고 실존에 기인한 고통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등은 제주도 신화의 의의를 새삼 되새겨보게 한다. 특히 <초공본풀이>에 보이는 고통을 통해서 고통의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공감과 동정과 사랑에 기초한 도덕이라는 레비나스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규범적 도덕관념의 학습이 아니라 공감에 의한 자발적 실천으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민중적 이해의 기초가 이러한 구비 서사시를 통해서 전승되어 왔다는 것은 구비문학의 의의를 더 깊게 한다.

그러면서도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 아기씨의 고통이 여성적 무지와 연관되어 있음을 제주의 다른 서사무가와 비교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 신화에서 여주인공들이 교만으로 인해 비극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초공본풀이>는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서사무가이다. 수많은 굿법이 <초공본풀이>에 연원을 둔다고 이해되고 있다. 심방들은 <초공본풀이>를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단골들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성을 가진 신화로서 <초공본풀이>는 그 의미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더욱 넓고 깊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공본풀이>를 비롯한 제주도 무속 신화를 세계의 다른 신화나 구비문학과 비교하는 작업도 아울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1-333면.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1-506면.
 레비나스, 양명수 번역, 『윤리와 무한』, 다산글방, 1-160면.
 로버트 존슨, 고혜경 옮김, 『신화로 보는 여성성 she』, 동연, 2006, 1-143면.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383면.
 앤토니 앤드류스, 김정현 옮김, 『고대 그리스사』, 이론과 실천, 1999, 1-457면.
 오비디우스, 이윤기 옮김, 『변신 이야기 1』, 민음사, 2007, 1-379면.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문예출판사, 2009, 1-382면.
 이부영,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고통과 치유의 상징을 찾아서』, 한길사, 2012, 1-758면.
 적송지성,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 上, 동문선, 1991, 1-394, 부록 1-114면.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922면.
 키스터, 『삶의 드라마』,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7, 1-200면.
 폴 리콥르,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 문학과지성사, 1994, 1-330면.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859면.

2. 논문

- 공병혜, 「고통의 현상과 윤리적 삶」,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인문의학』, 휴머니스트, 2008, 129-146면.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에서 “대면적 관계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동서철학회 논문집』 19호, 한국동서철학연구회, 2000, 125-141면.
 박정호, 「고통의 의미 -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2권 4호, 2011, 131-159면.
 서대식, 「구령당당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3,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172-205면.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비속함과 성스러움」, 『고전문학연구』 42집, 한국고전문학회, 2012, 169-193면.
 ———, 「여성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이공·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고전여성문학연구』 2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33-257면.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입사담적 면모」, 『한국무속학』 19, 한국무속학회, 2009, 7-33면.

논문투고일 : 2013. 4. 29. 심사완료일 : 2013. 6. 3. 게재확정일 : 2013. 6. 7.
--

Abstract

On the Problem of Suffering in Shaman Epic of Jeju Island

Shin, Yeon-woo*

I have examined the problem of human suffering through the three pieces of shaman epic of Jeju Island. <Bepodoupchim> shows us the sufferings from nature itself. <Chonjiwang Bonpoori> is about the sufferings from man of power/wealth. The heroine of <Chogong Bonpoori> does not know the reason why she had to go through such a hardship or ordeal. It is the sufferings from existence. we all have the same kind of suffering from unknown cause.

These myths show us the sober assessment of the human situation by telling us that there will be always sufferings with us; as shown in the failure of punishing the villain 'Soomyong Jangja', and the insoluble and cascading suffering of the lady of <Chogong Bonpoori>.

Her face, moan, cry and lamentation talk to us. we can not help noticing and hearing her suffering. We become share her sorrow. The shaman and the audiences share the tears with the heroine. That way, it seems to be possible for us to understand the others, the weak, as Emmanuel Levinas, a French Philosopher, taught us.

I also have compared the aspects of human suffering with that of other Jeju shaman epic <Igong Bonpoori> and <Segyoung Bonpoori>. I have checked some contrast between <Chogong Bonpoori> and a Greek tragic myth <Niobe>, the 'ignorance' of the lady of <Chogong Bonpoori> and the 'hubris' of Niobe, the daughter of Tantalos.

key words Jeju Island, Shaman Epic, Suffering, <Chogong Bonpoori>, <Bepodo Upchim>, <Chonjiwang Bonpoori>, <Igong Bonpoori>, <Segyoung Bonpoori>, Niobe

* Seoul Tech.